



벌써 선교사

제나 코포드의 인터뷰에서 발췌, 미국 유타 주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은 복음을 나누라는 도전 과제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미국의 주에 대해 발표를 해야 했을 때,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예요!

도전 과제

선생님께서 미국의 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를 설명하는 작은 모형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유타 주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 휴가로 유타에 여러 번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벌집 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사실

저는 꿀든 스파이크라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가 유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프로젝트에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도 넣었어요. 또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에 대한 사실들도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친구들과 선교사들에게 저의 상자를 보여 주고 있어요.

벌집

저는 디오라마로 반 친구들에게 구주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저는 상자에 꿀벌 모양의 종이를 붙이고, 그 상자를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했어요. 벌집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꿀벌처럼 부지런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줘요.



제스가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 나쁜 말을 사용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활동을 찾아본다.
-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기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부모님의 허가서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 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선교사가 되는 것에 관한 정보

저는 제가 준비한 학교 과제를 전시장에 들고 갔어요. 모두 저의 꿀벌 상자를 마음에 들어 했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백 점을 주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유타 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질문할지도 몰라요. 저는 빨리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사진: 제나, 케시의 가족, 샬라: 브래드 토퍼